

201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오전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 (1) 제시문 (가), [그림 1], [그림 2]를 참고하여 모던 걸과 모던 보이 문화의 서술하시오.
- (2)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모던 걸과 모던 보이 문화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시오.

제시문 (가)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에 유입된 서양 문화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갔다. (중략) 대중문화의 유행은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영화 속 주인공의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을 따라 하는가 하면 신여성의 상징으로 단발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관료들과 학생을 중심으로 양복과 양장이 보급되기도 하였지만, 사람들은 주로 한복을 입으면서 구두와 모자를 같이 착용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 일본과 중국의 음식들이 점차 도착화되었고 빵과 아이스크림 같은 서양 음식도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모던 걸과 모던 보이는 도시의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상징이었다. 은행, 백화점을 비롯하여 식당, 카페와 다방, 극장과 댄스홀 등 대형 상업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차와 버스가 각광받았다.

[그림 1] 모던 걸과 모던 보이(《별건곤》, 1927년 7월호)



『이려고 다녀야 배우인줄 알아주니 배우 노릇하기도 한 별(여간) 고생이 아니야...』
 『아이고 사이상 보다도 내가 더 고생이지요. 작은 구두 신고 궁둥이 짓을 하노라니 발목이 견디어 나가지』

[그림 2] 미쓰코시 백화점



미쓰코시는 1914년 도쿄에 백화점을 열었다. 경성에서는 1916년 3층짜리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 출장소를 충무로에 개설하였다. 조선에서 처음 문을 연 백화점이 바로 미쓰코시 경성점이다.

제시문 (나)

(1)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유입된 근대적 문물과 제도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는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일본의 선진 문명을 한국에 이식함으로써 ‘일본은 우월하다’와 ‘조선은 열등하다’라는 의식을 조장하여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대도시를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모습도 빠르게 변화해 갔다.

(2) 3·1 운동을 계기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 사회 각계 각층은 수많은 사회단체를 조직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청년들이었다. 당시 청년들은 국내외에서 신학문을 익혔고, 3·1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민족의식이 강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수백 개에 이르는 청년회를 만들었다. 1924년에는 당시 600여 개의 청년 단체 가운데 250여 개가 참여한 조선 청년 총동맹을 출범하였다. 이들 청년 단체들은 각 지역에 일어난 노동과 농민 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3)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대다수 빈민층으로 도시 외곽에 모여 살았다. 이들은 독, 강바닥, 다리 밑, 산림 등의 공터에 땅을 파고 짚이나 거적 같은 것을 둘러서 초라한 움막을 지어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토막민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품팔이와 텃밭농사를 하면서 힘든 삶을 이어 갔다. (중략) 신당리(현재 서울 성동구)는 왕십리로 가는 큰길 연변 얼마 못 되는 초가집을 제외한 전 호수 2,700여 호의 절반 이상이 과연 이곳에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가 싶은 토막민이다. (중략) 토막민의 사는 모양을 들여다보면 과연 눈으로 볼 수 없다. 새벽이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은 채로 정한 곳이 없이 일터를 찾아간다. 그날 하루를 온종일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별지 못한 날은 별 수 없는 굶는 것이 일상이다.

[문항 2]

- (1) 제시문 (가)와 <표 1>, <표 2>를 근거로 빈곤의 개념과 빈곤 현황의 추이를 서술하시오.
- (2) (1)의 결과와 [그림 1]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한계를 논의하시오.

제시문 (가)

빈곤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빈곤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생존 욕구 충족을 비롯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즉,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 빈곤은 그 사회에서 생존이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기준은 정부나 전문가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매년 최저 생계비를 예상하여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층을 지원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보통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중위 소득은 사람들을 소득 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할 때 그 중 한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이 갖는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중위 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여 그에 미달하는 경우는 상대적 빈곤으로 본다.

절대적 빈곤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대적 빈곤은 부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 소득이 적어 대다수가 생필품조차 부족한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의 해결이 강조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상대적 빈곤 문제가 커진다. 상대적 빈곤선은 경제 성장에 따라 함께 높아진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문제는 성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시문 (나)

과거에는 개인과 가족이 중심이 되어 상부상조와 자선적 활동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제도적 수단과 정책을 통해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복지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사회 복지의 의미도 국민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가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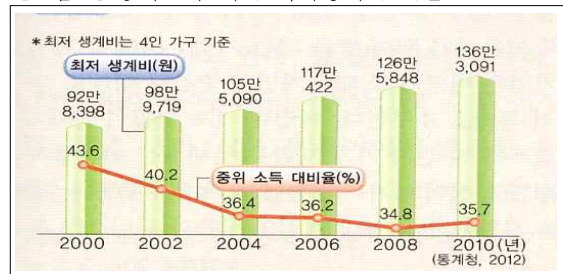
현대 국가의 복지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식주 및 교육, 보건,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복지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제도적 노력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 부조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기초 수급 대상이 된다.

<표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연도	2003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절대적 빈곤율	6.9	6.9	7.7	7.8	8.1	7.1	6.3

[그림 1]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표 2>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

연도	1995	2000	2005	2010
상대적 빈곤율 (단위: %)	8.3	10.4	13.6	14.9
소득 5분위 배율*(단위: 배)	4.4	5.3	5.4	5.7

* 소득 5분위 배율: 도시 근로자 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의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 수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해짐.